

동아시아古代學 제53집

근대국가 일본의 형성과정과 그 구조

-전통에서 소환한 근대-

장우순 · 문치웅

2019. 3.

東아시아古代學會

근대국가 일본의 형성과정과 그 구조

-전통에서 소환한 근대-

장우순* · 문치웅**

目 次

- I. 머리말
- II. 에도시대와 무사도
- III. 근대 일본-천황제 전체주의 병영국가
- IV. 근대 군사국가의 학자
- V. 맺음말

【국문초록】

근대국가 일본은 천황제를 표방하는 전체주의적 병영국가였다. 헌법과 법률, 여러 문건들을 통해 표방된 천황중심의 사회는 서남지역 군벌들이 계급적 한계를 극복하고 집권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내세운 명분이었다. 전근대의 유산인 무사중심의 병영문화와 상징 천황은 서남 군벌들에 의해 근대적 의미로 재해석되었고, 선택적으로 수용된 서구의 문화는 재해석된 전통에 법률적, 현실적 권력을 부여하였다.

근대 일본의 학교와 군대는 일본의 인민들에게 천황담론과 무사도담론을 반복적으로 주입하고, 감시, 통제함으로써 이들을 병영사회의 병사로 기능하는 근대 국민으로 규율하였다. 이렇게 규율권력에 노출된 개인은 권력의 의지를 내면화한 채 병영사회의 부품으로 소모되었다.

* 홍익인간재단 책임연구원

** 홍익인간재단 연구원장

천황을 앞세운 왜곡된 역사관인 황국사관, 식민사관 역시 근대의 규율권력과 그들이 창조한 '국민'의 합의를 이해해야 그 실체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

주제어 : 근대, 국민, 무사도, 담론, 천황제, 규율, 병영사회

I. 머리말

근대의 군대는 하나의 인간을 전술적, 혹은 효율적인 수단으로 간주하였다. 군대의 구성원은 지휘자의 감시와 통제에 순응하여, 조직의 목표를 위해 소모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던 고유한 품성과 인간성은 철저하게 사상되었다.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거나, 제시된 목적에 의문을 품을 수도 없다. 의문과 부정은 처벌, 소외, 도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인간성이 말살된 상태에서 서로를 감시하고 통제하며, 극소수만이 독점한 정보와 전략을 위해 인간이 효율적인 부품으로 기능하는 곳이 바로 근대의 군대였다.

근대시기의 일본은 소수 군벌이 권력을 독점한 채 강한 군사력에 의지하여 군사대국화를 지향하였던 병영사회였다. 권력을 장악한 소수의 군벌은 전근대시기의 유산인 무사사회의 특징을 근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독일로부터 이식받은 근대식 군대의 통제 기제를 사회 곳곳에 배치하여 근대적 병영사회를 만들어나갔다. 특히 근대의 국민을 생산하는 제조창의 역할을 하였던 학교와 군대는 근대권력의 요구에 부응하여 철저하게 개인의 일상을 감시·통제하고 파편화함으로써 병영사회에 적합한 인간상을 조립·창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근대국가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은 근대의 전 시기인 근세, 혹은 중세의 유체로부터 시작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근대시기 여러 국가들의 형태와 성격을 통해서 확인된다.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